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설명절 연휴기간 공중화장실 청결 및 국민편의대책 추진

1.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125(2016.01.13.)호와 관련입니다.

2. 금번 설 연휴기간중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청결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국민편의대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6. 2. 1. ~ 2. 15 (*설날 : 2.8)

나. 대 상 : 자치단체 관할 공중화장실

다. 주요내용

1) 공중화장실 대청소 및 시설, 위생 등 자체점검(붙임2 : 점검표)

2) 혼잡한 곳은 이동식화장실 추가배치 및 가변형 화장실(남성화장실 좌변기 일부를 여성화장실로 임시 활용)운영, 여성이용자의 장시간 줄서기 불편 해소

3) 변기칸 안의 휴지통에 사용한 휴지를 버려 노출시킴으로써 악취 발생,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휴지통 비치 금지(단, 여성화장실 변기옆에는 여성위생용품수거함 별도 비치 필요), 안내스티커 부착(예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리세요”)

※ 근래 화장지는 과거와 달리 물에 잘 분해가 되므로 하수관 막힘의 원인이 아니며, 정부청사, 지하철 5678호선,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일부 지자체에서 “변기옆 휴지통없애기 운동”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둬.

→ 우선 3개월정도 시범운영을 해 보도록 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에 권장 필요(쓰레기 배출량 감소효과도 큼)

4) 지자체에서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경우, 도로 등 화장실 안내표지판에 그 유, 무를 표시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

5) 특히 화장실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전파의 취약 공간이 되지 않도록 공중화장실 위생환경 개선 및 손잡이, 세면대, 변기 등에 대한 주기적 소독 실시

→ 고체비누보다 액체(거품)비누가 더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손건조기내에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 손씻기 생활화, 내손수건 사용하기, 화장실 문화바꾸기 안내문 부착 등 홍보

3. 동 추진실적은 붙임 3(서식2)에 의거 '16.2.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16년 공중화장실 청결 및 국민편의대책 추진계획(행정자치부) 1부.
2. 공중화장실 점검표(서식 1) 1부.
3. 2016년 설명절 공중화장실 청결 및 국민편의대책 추진실적(서식 2)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자치구(공중화장실 관련), 사업소 및 지하철공사 8개 기관, 지하철9호선

주무관

공중위생팀장

생활보건과장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230 (2016.01.15.) 접수 청소과-1359 (2016.1.15.)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 4층

전화 02-2133-7670 / 전송 02-2133-0727 / relaxu1330@gmail.com / 대시민공개